GLOBAL
EQUITY

2025. 9. 15.

글로벌주식팀
이창희 Senior Analyst
changhe01.lee@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Now Japan 시리즈

일본의 신탁시장은 왜 그렇게 발달했을까?

- 일본 신탁시장은 포괄 신탁, 재신탁 중심. 최근 고령화에 따른 개인 신탁 수요 증가
- 3대 신탁은행은 각각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주도
- 일본 사례는 제도, 세제 정비와 상품 다변화가 신탁시장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

WHAT'S THE STORY?

일본의 신탁시장은 포괄 신탁, 재신탁 중심으로 성장: 일본의 신탁 재산은 2025년 3월 말 기준 약 1,826조 엔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6.4% 성장하며 20년간 3배 이상 확대됐다. 구조적으로는 금전형 신탁보다 부동산, 유가증권, 복합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비금전형 신탁 비중이 커졌고, 특히 포괄 신탁(Composite Trusts)이 전체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신탁자산의 30% 이상이 재신탁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수탁자와 운용자 간 분업화 및 전문화가 진행되어 있다. 개인의 신탁은 아직 비중이 작지만 초고령화, 유언대용 신탁, 치매대비 신탁 등 고령자 중심의 수요 증가와 제도·세제 개선으로 빠른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3대 신탁은행은 각각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주도: 일본의 3대 신탁은행(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미쓰비시UFJ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은 각각 특화된 경쟁력을 지니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는 부동산 중개 및 자산 승계(유언 신탁 등)에 강점을 지니며 '인생 100년' 신탁 상품 등 개인 맞춤형 고령자 지원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미쓰비시UFJ 신탁은 그룹 내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계열사와의 연계 및 해외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 구축 등에 집중하여 법인 및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미즈호 신탁은 법인 중심 솔루션, 자산 유동화 및 구조화 금융,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지며, 비용 민감성이 있는 중소자산가 및 법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제도, 세제 정비와 상품 다변화가 신탁시장 활성화의 핵심: 일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및 법률 정비: 신탁법 및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수탁 가능 자산의 범위 확대, 수탁자 및 수익자 간 책임·권리 규정의 명확화, 가족 신탁(민사 신탁) 허용 등이 신탁시장 확대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세제 인센티브 제공은 개인 신탁 활성화의 핵심: 유언대용 신탁, 교육자금증여 신탁, 결혼육아지원 신탁 등 특정 특수 신탁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신탁 수요가 증가했다. 셋째, 고령화 대응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시장 성장의 중심: 치매대비 신탁, 유언대용 신탁, 상속승계 신탁, 연금형 신탁, 부동산연계 신탁 등 고령자의 생애 주기 설계에 맞춘 상품과 신탁은행의 종합 자산관리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일본의 신탁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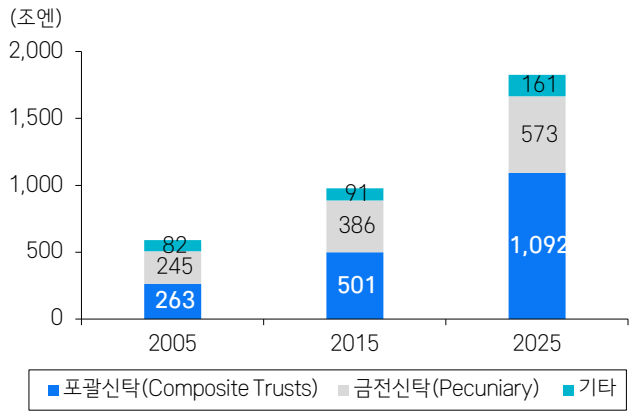
일본의 신탁 재산 총액은 1,800조 엔 규모

법인/기관 투자자 중심 포괄 신탁이 발달

일본신탁협회에 따르면 25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신탁 재산 총액은 1,826조 엔 규모로 원화 환산 시 약 1경 7,000조원에 달한다. 신탁 재산 총액은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한 2005년도부터 20년간 연평균 6.4%씩 증가해 2025년에는 3배가 넘게 성장했다. 특히, 2024년에는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까지도 신탁 재산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신탁 수탁고는 약 1,38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차이(24년 기준 일본 1억 2,350만 명 vs 한국 5,160만 명)와 재신탁(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 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 투자 신탁을 포함하지 않는 한국의 신탁시장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신탁시장 규모는 한국의 5배 이상으로 일본 신탁시장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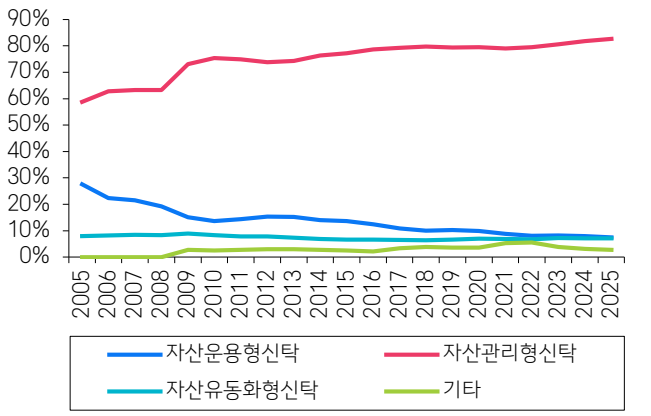
이렇게 20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일본의 신탁 재산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신탁 재산은 수탁한 재산의 형태에 따라 금전형 신탁(Pecuniary Trusts), 비금전형 신탁(Nonpecuniary Trusts)로 구분되는데, 2005년 당시 일본은 금전 신탁(Money Trusts, 116조 엔), 투자 신탁(Investment Trusts, 71조 엔) 등으로 구성되는 금전형 신탁과 포괄 신탁(Composite Trusts, 262조 엔), 유가증권 신탁(Securities Trusts, 52조 엔) 등으로 구성되는 비금전형 신탁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비중이 3:7로 확대되며 신탁 재산에서 비금전형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고, 특히 포괄 신탁이 전체 신탁 재산의 약 60% 수준(1,092조 엔, 재신탁 약 600조 엔 이상 포함으로 추정)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포괄 신탁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통합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형 신탁으로 한국에서는 종합 재산 신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포괄 신탁이 발달한 이유는 일본의 연기금 GPIF, 보험사, 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와 법인들의 경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포괄 신탁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괄 신탁의 계약 주체는 대부분 법인 및 기관 투자자로 일본 신탁시장의 발달은 법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신탁 재산 총액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신탁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비중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재신탁이 보편적인 일본의 신탁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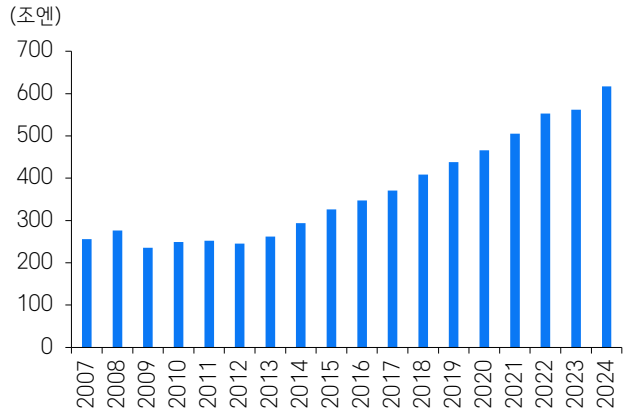
일본 3대 신탁은행은 자산관리 전문 신탁은행을 자회사로 보유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일본 신탁시장의 특징은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재신탁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체 신탁 재산 총액 1,826조 엔 중 약 600조 엔, 30% 이상이 재신탁으로 추정될 만큼 규모가 크다. 신탁은행이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은행에 재신탁하면 신탁자산의 일원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자산관리 전문 신탁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하는데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책임 소재 불분명에 따른 수익자 보호 약화, 운용 및 관리 측면 이중 리스크 발생 가능성, 감독 당국 규제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본은 재신탁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어 신탁회사간 재신탁이 일반적인 형태로 연기금이나 보험사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신탁은행(관리 중심)에 자산을 맡기고, 신탁은행은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회사(운용 중심)에 재신탁을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표적인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고객의 신탁 재산을 일본 커스터디 은행에 재신탁(관리위탁)하고, 보관·결제 등의 자산관리 업무는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계약은 고객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직접하며 관리위탁의 범위 및 고객의 권리 등을 명확히 하는 제3자간 협정서를 함께 체결한다. 책임 관계는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이 고객과의 계약에 근거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에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일본 커스터디 은행의 선임,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처럼 일본의 3대 신탁은행(미쓰비시UFJ 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은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 전문 신탁은행에 재산 관리 업무를 포괄 신탁 형태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자산관리 전문 신탁은행으로는 미쓰비시UFJ 계열의 일본마스터트러스트 신탁은행(MTBJ, 2000년 5월 설립, 미쓰비시UFJ 신탁은행 66%, 닛폰생명 17.5%, 다이이치생명 16.5%)과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계열의 일본커스터디은행(CBJ, 2020년 7월 JTSB, TCSB가 경영통합,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66.6%, 미즈호 신탁은행 33.3%)이 있다.

일본 재신탁 규모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재신탁 구조 예시

자료: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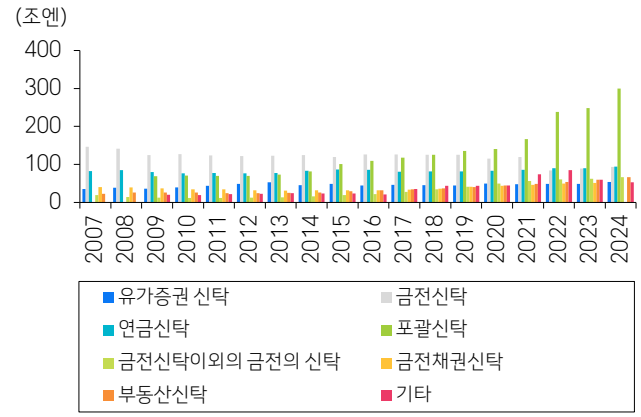
일본 신탁시장의 성장은 아베노믹스 효과?

2013년 이후 법인, 기관 투자자 증가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 아래 차트와 같이 일본 전체 신탁시장에서 중복계상 이슈가 있는 재신탁과 펀드 수탁고를 의미하는 투자 신탁을 제외했다. 재신탁 및 투자 신탁을 제외하더라도 포괄 신탁의 성장은 두드러진다. 즉, 일본 신탁 재산의 높은 성장을 견인한 것은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자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중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 일본 국내 비금융 부문(기업법인), 보험 및 연기금의 신탁 수익권 추이는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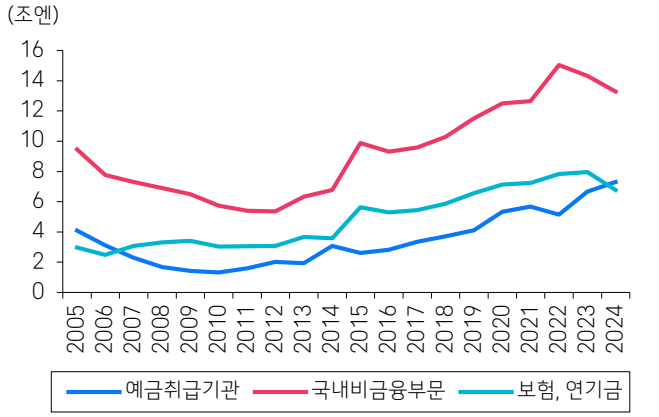
2012년 12월은 아베 2차 내각 출범한 시기로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다. 기업,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예금을 통한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이면서 운용 수익 가능성이 높은 포괄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2011년의 엔화 환율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금 역송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달러 기준 70엔 중후반 수준으로 강세 구간이었다.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3개의 화살(재정 확대, 금융 완화,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대규모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행은 국채, ETF 대량 매입을 개시했고, 2013년 이후 미국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실적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을 포함한 자금, 자산에 대한 신탁 수요도 일부 신탁 재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탁 재산 추이(재신탁, 투자 신탁 제외)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참고: 재신탁과 투자 신탁을 제외한 수치

법인 및 기관 투자자 신탁 수익권 보유 추이



자료: BOJ,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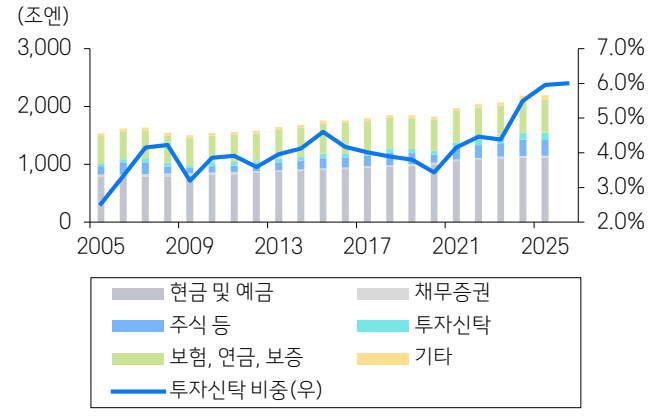
최근 자산 이전 목적 개인 신탁 수요 증가

고령자 리스크 대응 중심으로 성장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2,200조 엔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투자 신탁의 비중은 과거 20년간 3-4% 비중에 불과했지만, 2025년 기준 약 130조 엔으로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 6%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 신탁 재산 총액 약 1,826조 엔 중 약 7%로 추정된다. 즉, 여전히 전체 신탁 재산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본은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이며, 전체 자산의 약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탁은 이런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 수단이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들은 은퇴 이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특히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사전 자산관리 수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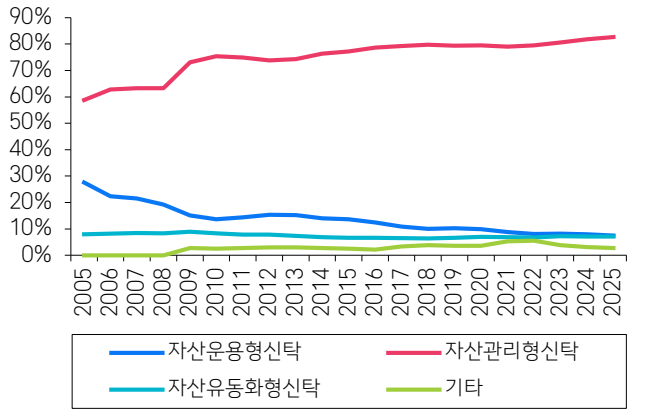
이처럼 초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후견제도의 한계로 인한 대안 필요성, 신탁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유연성 확대, 신탁은행의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개인 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일본의 신탁 재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형 신탁(관리 중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자산운용형 신탁(투자 중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본의 신탁 형태가 수익 추구보다 치매, 요양, 상속, 사후처리 등 고령자 리스크에 대응하는 관리, 보호 기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비중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신탁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비중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신탁업 성장 기반, 신탁업법 및 신탁법 개정

유언대용 신탁 등 개인 신탁상품 확대

일본은 1922년 ' 신탁업법'과 '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82년만인 2004년 12월 신탁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주된 내용은 1) 수탁가능재산 범위제한 철폐(지적재산권 등), 2) 신탁기관 다양성 확대, 3) 신탁회사 행위 기준 마련(신탁 제3자 위탁 인정 등), 4) 신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5) 신탁 서비스 이용자 창구 확대, 6) 외국 신탁회사 일본 영업 허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2006년 '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수탁자의 의무, 수익자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기 신탁, 수익증권발행 신탁, 목적 신탁 등 새로운 신탁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신탁법을 개정했다. 상업적 목적의 상사 신탁 외에도 고령자나 장애자의 재산 관리 등 복지 목적의 민사 신탁 등 다양한 신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탁법의 개정은 이전 금전, 부동산 중심 신탁에서 주식, 채권, 실물자산 등 신탁 재산의 형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일본 정부도 고령자 보호와 자산 유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탁업을 적극 활용했다. 2006년 신탁법 개정에서 위탁자 사망 이후의 발생하는 재산 이전, 관리도 계약을 통해 가능하도록 인정하면서 유언대용 신탁, 사후대리 신탁 등 고령자,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개인재산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보험사와의 협업으로도 확장되어, 시니어하우징 개발과 금융상품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되었지만, 일본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초기 시장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2012년 일본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종합 대책과 맞물린 후견제도지원 신탁, 2013년 아베노믹스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교육 목적으로 증여 시 최대 1,500만 엔 비과세 증여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자금증여 신탁, 장애인 등 특정 수익자에게 특수 목적으로 증여하는 특정증여 신탁, 2015년 저출산에 대책에 따른 결혼 육아지원 신탁 등 다양한 개인 신탁 상품들이 출시됐다.

일본 신탁상품 종류

신탁 분류	목적	상품
개인 신탁	자산승계, 상속 신탁	교육자금증여 신탁, 결혼육아지원 신탁, 유언대용 신탁, 후계자 지정 승계형 수익자 연속 신탁, 사업승계 신탁, 생명보험 신탁, 유언 신탁
	자산형성, 자산운용 신탁	금전 신탁, 투자 신탁, 연금 신탁, 재산형성 신탁, 부동산 신탁
법인 신탁		고객분별금 신탁, 증권대행업무, 담보권 신탁, 신탁형라이트플랜, 주식교부 신탁, 자산유동화 신탁, 특정금전 신탁, 유가증권 신탁, 수익증권발행 신탁
애완동물		공익 신탁, 특정증여 신탁, 후견제도지원 신탁, 특정기부 신탁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고령 인구를 위한 주요 신탁 상품

신탁 종류	내용
치매 대비 자산관리 신탁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 상실 시 자산 동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신탁 또는 가족 신탁 활용. 사전에 수탁자(자녀 등)를 지정해 자산 운용/지출을 위임.
연금형 부동산 신탁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수익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수령. 은퇴자 소득보장 목적.
유산 분배형 신탁	사망 후 유산을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 조건부 지급: 자녀 A에게는 학업 종료 후 지급, 자녀 B는 장애인이라 평생 분할 지급.
공익 신탁 및 기부형 신탁	자산의 일부를 지정된 공익단체, 종교 단체, 연구소 등에 기부하는 신탁. 요건 충족 시 기부세액공제 가능.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본격적 성장은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일부 특수 신탁에 대해 비과세

신탁법 개정이 신탁산업의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신탁은 세제상 유리한 점이 많다. 개인 신탁 상품 중 2013년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개시된 교육자금증여 신탁은 손자(직계존속, 30세 미만, 전년 합계소득금액 1,000만 엔 이하) 등의 교육자금 목적으로 조부모가 신탁은행에 금전을 신탁할 경우 1,500만 엔(학교 이외 교육 자금일 경우 500만 엔)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2015년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된 결혼육아지원 신탁은 손자(직계존속, 18세 이상 50세 미만) 등 결혼, 육아 자금으로 조부모가 신탁은행에 금전을 신탁할 경우 1,000만 엔(결혼 비용은 300만 엔)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최근 투자 신탁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상품의 비과세보유 한도액은 1,800만 엔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개인 신탁의 성장을 위해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유언대용 신탁이나 성년후견 신탁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탁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의료, 개호비용 지출과 같은 목적까지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로 설계되며, 상속 시 자산 이전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구조화된 투자 수단이 확산되고 있다.

신탁의 형태에 따라 3단계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

구분		내용
신탁 설정 시	타익 신탁 (위탁자 ≠ 수익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 **단, 일부 특수 신탁은 예외로 증여세가 비과세.** (예: 장애인 대상 특정증여 신탁, 교육자금, 결혼자금 신탁 등)
	자익 신탁 (위탁자 = 수익자):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부동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단,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등록면허세가 부과.
신탁 운용 중		신탁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과세: 수익 발생 시 수익자 과세 (예: 부동산·유가증권 신탁 등)→ 수익자에게 직접 소득세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부과. 수익 분배 시 수익자 과세 (예: 투자 신탁, 연금 신탁 등)→ 수익이 분배될 때 수익자에게 소득세 부과. 수탁자에게 법인세 과세 (예: 수익자 없는 목적 신탁 등)→ 실질적 수익자가 없을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 ※ "수익자 과세의 원칙":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수익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
신탁 종료 시	타익 신탁	설정 시 이미 증여세 납부했기 때문에 종료 시 세금 없음. 단,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신탁 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
	자익 신탁	실질 소유자가 변하지 않으므로 세금 없음 (증여세·상속세 면제)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타익 신탁 예시

신탁 종류	비과세 한도	비고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신탁	해당 없음	비과세
장애인 대상 특정증여 신탁	6,000만 엔 또는 3,000만 엔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교육자금 신탁	1,500만 엔	학교 외 교육비는 500만원엔까지
결혼·육아 지원 신탁	1,000만 엔	결혼비용은 300만 엔까지 포함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단카이 세대의 초고령층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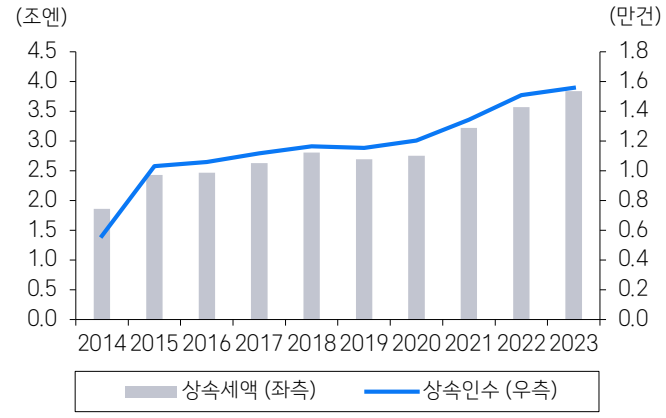
상속, 승계 위한 유언대용 신탁 증가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 23년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은 21.6조 엔 규모로 이 중 상속세는 3.8조 엔, 상속인 수는 15.5만 명 수준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가 75세 초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면서 2040년까지 사망자 수가 16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상속인 수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이러한 인구변화 속에서 위탁자 자신이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하고, 사망 후에 자녀나 배우자 등을 수익자로 설정하는 신탁 형태인 유언대용 신탁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면,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비용,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수취인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집행하는 상품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대용 신탁 건수는 연간 4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했으며, 최근 약 10여년간 꾸준히 매년 1만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 유언서의 보관(집행 포함) 건수도 매년 약 1만 건 이상씩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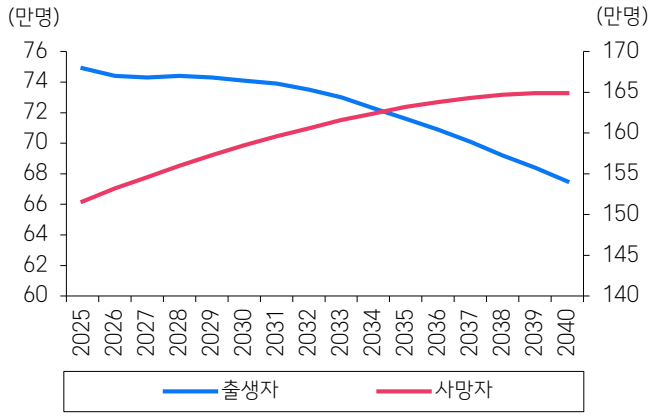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사망한 경우 기업을 승계하는 방식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이 사전에 후계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식을 신탁은행 등에 신탁한 뒤,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망 후에 후계자에 주식이 교부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경영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의 계속, 승계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근 기업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언대용 신탁 방식의 신탁구조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상속세 규모 및 상속인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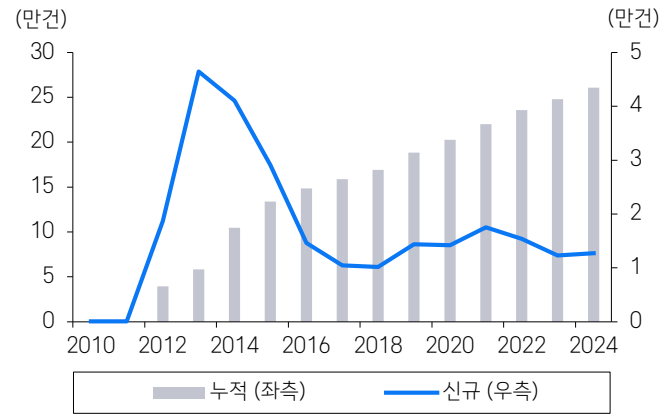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세청, 삼성증권

일본 고령자 인구 및 사망자 수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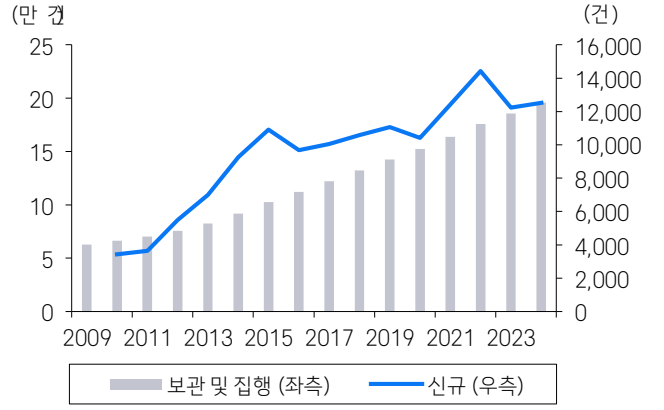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삼성증권

유언대용 신탁 누적 및 신규 건수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상속 유언서 보관 및 집행 누적 및 신규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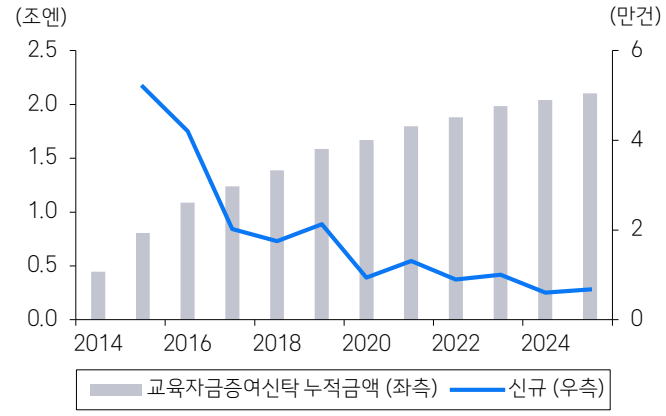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교육자금증여 신탁, 결혼육아 신탁 증가

2013년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개시된 교육자금증여 신탁은 손자(직계존속, 30세 미만, 전년 합계소득금액 1,000만 엔 이하) 등의 교육자금 목적으로 조부모가 신탁은행에 금전을 신탁할 경우 1,500만 엔(학교 이외 교육 자금일 경우 500만 엔)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작되고 연간 5만 건이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연간 약 6천건 정도로 성장세는 주춤한 편이지만 누적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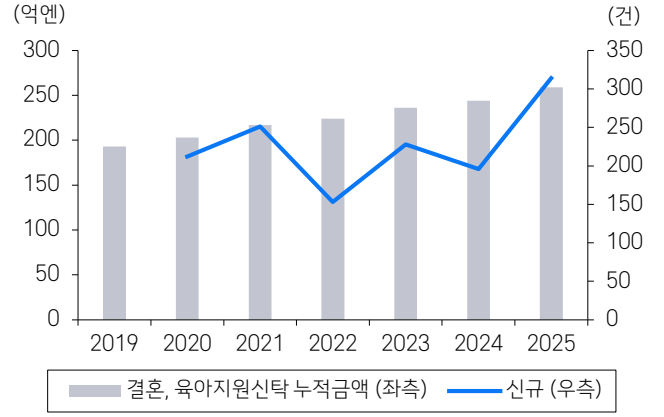
또한, 2015년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된 결혼육아 지원 신탁은 손자(직계존속, 18세 이상 50세 미만) 등 결혼, 육아 자금으로 조부모가 신탁은행에 금전을 신탁할 경우 1,000만 엔(결혼비용은 300만 엔)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일본의 연간 혼인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결혼육아 신탁의 경우 연간 약 300여 건의 신규 증가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생각된다.

교육자금증여 신탁 누적 금액 및 신규 건수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결혼육아 신탁 누적 금액 및 신규 건수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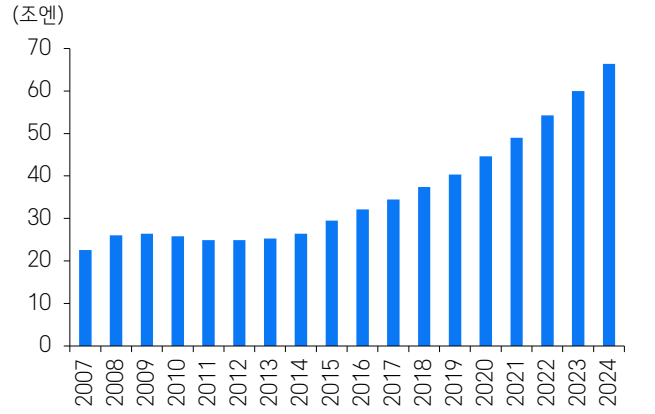
유언대용 신탁과 접목한 부동산 신탁 증가

부동산 신탁은 개인이나 법인의 위탁자가 신탁은행 등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목적에 맞게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을 하는 신탁이다. 위탁자는 복잡한 부동산 관리 사무를 대신 맡길 수 있고, 일부 신탁은행은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개 업무 및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도 대행한다.

신탁하는 재산이나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관리 신탁, 부동산처분 신탁, 부동산관리처분 신탁, 토지 신탁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관리 신탁은 부동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탁은행이 세입자 모집, 임대료 수취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유언대용 신탁과 부동산관리 신탁을 접목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유언대용 신탁과 조합해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후에는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위탁자가 사망 시 원활하게 친족에게 부동산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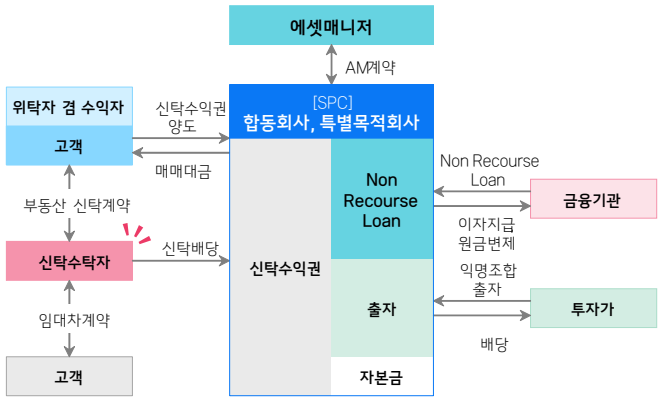
또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은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자산유동화 신탁이라고도 한다.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의 구조로 유동화 하는 형태로 특히 자금 조달, 자산의 off-balance 목적으로 사용된다. 부동산관리처분 신탁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목적회사(SPC)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고, 신탁 물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탁 목적에 따라서 관리, 임대, 건물의 건설, 처분 등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신탁 배당으로 고객에게 분배한다. J-REIT(부동산투자 신탁)도 자산유동화 신탁 구조가 채택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신탁 구조를 활용해 부동산 소유자의 자금 조달이나 시공회사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부동산 개발, 유효 활용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부동산 신탁 규모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부동산 신탁 구조



자료: 리소나은행,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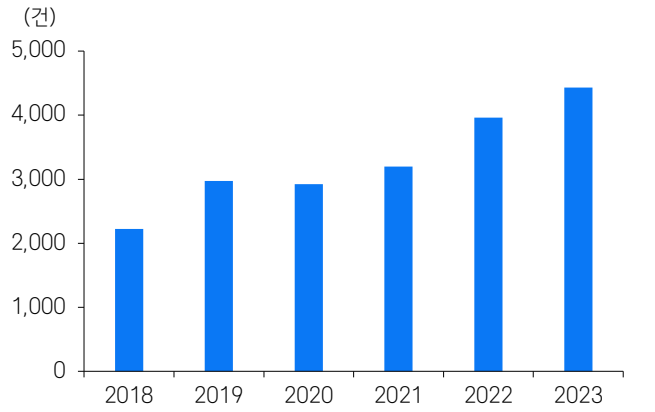
민사 신탁 증가 추세

일본 전문가 네트워크가 민사 신탁 확산 주도

민사 신탁이란 가족 간 또는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 재산을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가족 신탁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부모(위탁자)가 향후 치매 등에 대비해 자녀(수탁자)에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자녀는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그 수익은 본인(수익자)이 생존 중에 받고 사후에는 승계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민사 신탁 구조는 2006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초기에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인프라가 부족했다. 2015년 이후 일본 공증인연합회,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신탁협회 등 전문가 네트워크(변호사, 세무사 등)가 주도해 표준 계약서, 매뉴얼, 가이드 라인 등 교육 자료를 발간하면서 민사 신탁이 알려지게 되었고, 고령자 인구가 급증과 후견제도의 한계가 들어 나면서 가족 중심의 유연한 대체 수단으로 민사 신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공증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민사 신탁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연간 5,000건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실제로는 사문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건수는 약 2-3배 많은 1~1.5만 건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치매 등 고령자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향후 민사 신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 신탁 공정증서 작성 건수



자료: 일본공증인연합회, 삼성증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민사 신탁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자료: 일본변호사연합회, 삼성증권

2. 일본의 신탁은행

일본의 3대 신탁은행

일본의 신탁업은 고령화와 자산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크게 발전해왔으며, 특히 3대 신탁은행으로 불리는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미쓰비시UFJ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은 각각 독자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신탁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3대 신탁은행은 자산운용을 비롯해, 상속/승계 구조 솔루션, 부동산 유동화 및 기업의 지배구조 대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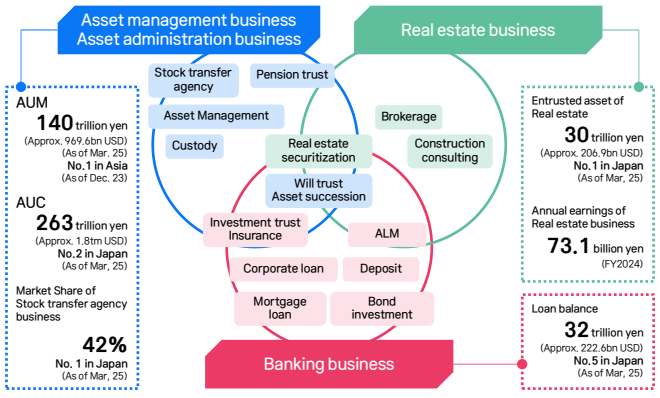
①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부동산 중개 및 자산 승계 분야에 강점

3대 신탁은행 중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일본내 유일한 독립 신탁전문 금융그룹인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홀딩스(Sumitomo Mitsui Trust Holdings) 산하의 핵심 자회사로 일본 최대의 독립형 신탁은행이다. 다른 메가뱅크 계열의 신탁은행들과는 달리 신탁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종합금융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은행 대비 신탁업무에 특화된 종합금융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탁, 자산운용, 부동산, 수탁업무, 상속 설계, ESG 자문, 자본시장 기능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 및 중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라이빗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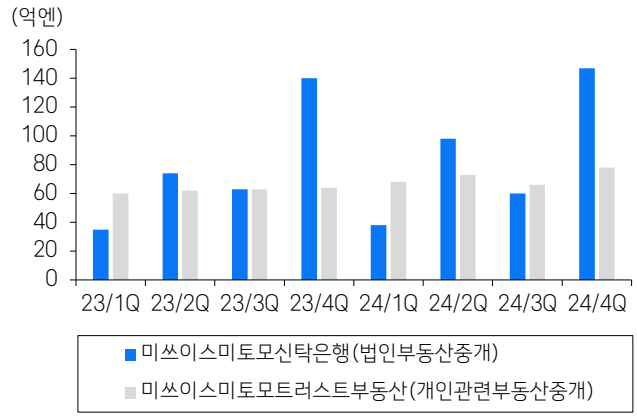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및 자산 승계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내 부동산증권화 수탁 규모 약 30조 엔(24년 9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41%)으로 1위이며, 24년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은 약 731억 엔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632억 엔(거래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금액의 약 3%로 추정)으로 대부분의 이익이 부동산 중개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파악된다. 법인 부동산 중개 거래를 담당하는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중개 수수료 수익이 344억 엔, 개인 관련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는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수익이 287억 엔으로 구분되는데 동사가 B2B 및 B2C 부동산 중개 모두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업과 신탁업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 제공



자료: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삼성증권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그룹 부동산 중개수수료 추이



자료: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삼성증권

또한 동사는 고령 고액 자산가들에게 자산관리 및 상속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고령 고객의 자산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는 신탁 상품을 목적별로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매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가 발병해도 가족들을 지원하고 발병 전 신탁한 재산들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인생100년 신탁(100년 패스포트)'과 같은 상품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중 유언 신탁(遺言信託) 서비스는 업계 내에서 가장 정교하고 실무 중심의 시스템을 갖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동사는 전문화된 유언 신탁 전담 부서에서 약 200명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연간 4,000건 이상의 유언 신탁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세무·부동산·가업 승계를 통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 오너의 가업승계 신탁에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 내 유언 신탁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및 고객 충성도를 확보 중이다.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유언 신탁 서비스는 단순 문서 작성 대행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종합적 자산계획 및 실행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 신탁시장의 실질적 성장성과 신탁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장기 성장성과 신뢰 기반 수익 모델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자산관리 및 승계 관련 신탁 상품

목적	상세	주요 신탁 상품
안심 목적	금융범죄 및 사기 방지	세큐리티형 신탁, 인생100년응원 신탁(100년 패스포트), 안심서포트 신탁, 자신연금 신탁
자산 승계	자녀 증여	역년증여서포트 신탁, 교육자금증여 신탁, 결혼, 육아지원 신탁, 특정증여 신탁
	사회 공헌	사회공헌기부 신탁, 특정기부 신탁, 공익 신탁, 유언대용기부 신탁
	상속 목적 주식 자금화	주식처분 신탁, 주식취득 신탁
	승계 계획	에스테이트플랜, 컨설팅 서비스
	장례 대행	가족배려 신탁(일시금형, 연금형, 적립투자형, 일괄교부형)
	유산분할 문제 방지	유언 신탁, 스마트유언, web 유언 신탁서비스, 하우징유언
체력, 판단 저하	가족에게 대행	인생100년응원 신탁(100년 패스포트), 안심서포트 신탁
	후견인 제도	임의후견제도지원 신탁, 성년후견제도 상담 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	후견제도지원 신탁, 성년후견제도 상담 서비스
사후 대책	사후 사무	1인가구 신탁, 1인가구 신탁(생명보험형)
상속인	상속 재산 조사 지원	상속수속토탈서비스, 상속재산평가 서비스
민사 신탁	민사 신탁 관련	민사 신탁서포트, 민사 신탁에 관한 변호사 소개 제도
전문가 소개	법률 전문가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유언/상속 변호사 소개, 민사 신탁 변호사 소개

자료: 삼성증권

유언 신탁 관련 규제 및 운용 방식

구분	내용
계약 유형	① 유언공증 포함 계약형 ② 생전계약형 + 유언 조항 첨부
규제 주체	금융청(FSA) 및 은행법에 따라 신탁회사 관리 민간 신탁업자도 일부 제한적 참여 가능
운용 구조	고인 생전 신탁계약 체결 → 사망 후 신탁회사가 자산 처리 → 상속인에게 분배
계약 요건	서면계약 필수, 공증, 수익자 지정 필수
신탁 재산 종류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등

자료: 삼성증권

유언 신탁의 혜택 및 사회적 역할

구분	내용
상속 분쟁 방지	법적 구속력 높아 상속인 간 다툼 감소
복잡한 자산 분할	자녀 A에게 부동산, B에게 주식 + 월 30만 엔 등 조건부 배분 가능
고령자 치매 대비	유언대용 신탁과 병행 시 치매 상태에서도 자산 계획 가능
세제 효율성	신탁회사가 유산 처리, 상속세 신고 효율화
부동산·사업 승계	가업 승계, 부동산 등 복잡한 유산 구조 효율적 처리

자료: 삼성증권

(참고) 유언 신탁(遺言信託)이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기반으로 신탁계약을 체결, 사망 후 자산을 특정 방식으로 이전 또는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 유언대용 신탁(遺言代用信託)과 구별되며, 일본에서는 은행 신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유언 신탁 예시) 80대 자산가 A씨가 도쿄에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약 15억 엔 규모를 보유,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 우려해 유언 신탁 설정. 신탁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언 신탁 설계 및 실행

1. 유언장 초안 작성 지원

- 자산 구성, 가족 관계, 세제 이슈를 모두 반영한 맞춤형 유언장 초안을 변호사, 세무사, 신탁 전문가와 공동 설계. 내용에는 장남에게 가업 승계, 장녀와 차남에게는 부동산 수익의 일정 비율 분배

2. 사전 자산관리

- A씨의 생전부터 자산 일부를 신탁에 편입하여, 투자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수행
- 고령자 본인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한 치매 대응형 관리 플랜도 포함

3. 사후 집행, 분배

- A씨 사망 후, 유언 검인 후 신탁사가 유언장 집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각 수익자에게 정확하게 분배
- 부동산 평가, 매각, 세무 신고까지 원스톱 수행, 상속인 간 분쟁 발생 시, 중립적 제3자로 조정 수행

유언 신탁으로 유언이 가능한 항목

유언 분류	내용
상속	• 민법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 지정 • 구체적 자산 분할방법 지정
재산처분	• 제3자에 증여 • 공적기관, 사찰 등 기부 • 신탁 설정
신분	• 추정상속인 폐제와 취소 • 자녀 인지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자 지정 등
애완동물	• 애완동물 보호자에 사료비 등 제공
유언집행자 지정, 위탁	• 신탁은행이 인수 가능한 유언집행 범위는 법률에 따른 재산의 처분, 상속에 관한 것으로 제한 • 신분에 대한 집행은 인수 불가

자료: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삼성증권

유언 신탁 비교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개요	공증인 앞에서 2인 이상 증인 입회 하 공증인에게 진술, 공증인 유언장 작성	유언 전체 내용, 날짜, 성명 전부 자필로 쓰고 날인
	병상에 있거나 글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유언 가능	가정법원 검인 필요 ※ 단, 법무국 자필증서 유언보관제도 이용시 불필요
장점	공증인 작성으로 절차상 무효가 될 위험 거의 없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성 가능
	위조, 변조, 분실 위험 없음	혼자 작성 가능, 비용 들지 않음
단점	내용이 다른 사람(증인 등)에게 알려짐	형식이 불완전하거나 내용 불명확해 향후 분쟁 발생 쉬움
	증인 필요	위조, 변조, 은폐 우려
	공정증서 작성 비용	유언 무효 가능성

자료: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삼성증권

유언 신탁과 유언대용 신탁 비교

구분	유언 신탁	유언대용 신탁
설정 방식	유언장에 따라 신탁을 설정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
발동 시점	사망 후 유언장 집행 시	사망과 동시에 자동 발동
필요 절차	유언 공증, 사망 후 상속개시 및 유언 검인 필요	검인 없이 자동 이행
운영 주체	사망 후 금융기관 또는 유언 집행자가 신탁 설정	생전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은행이 관리 가능

자료: 일본신탁협회, 삼성증권

② 미쓰비시UFJ 신탁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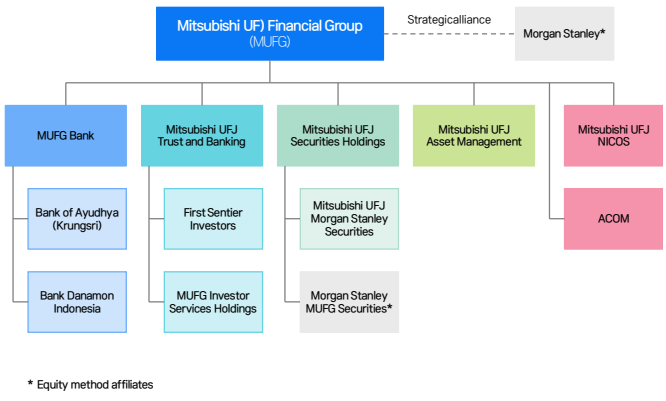
은행, 증권과 통합 솔루션 및 해외 네트워크에 강점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은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에 속한 신탁은행으로, 그룹 시너지 활용이 강점이다. MUFG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고객 및 기업금융에서 장점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탁 업무뿐만 아니라 연금 자산운용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수탁관리 서비스 부문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디지털 전환(DX)에도 집중하고 있어, 자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자산관리,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관리 실증사업, 부동산 거래 간소화 시스템 등에서 일본 내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MUF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부동산 신탁, 해외 부유층 대상 가업승계 자문 서비스 등 글로벌 신탁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은 일본 최대, 세계적 자산 규모의 금융그룹인 MUFG그룹 내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간의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원스톱 금융 서비스 제공이다. 독립계 신탁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이 비교적 신탁 단독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동사는 그룹의 메가뱅크 미쓰비시UFJ은행과 증권사 미쓰비시UFJ증권 등과의 시너지로 대형 M&A나 복합 금융거래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법인 고객의 M&A 구조 설계, 자산 유동화, 상속·승계 솔루션 등 복잡한 거래에서 타사대비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고객 대상으로도 그룹내 은행, 증권, 신탁은행의 PB 채널 통합으로 자산가 대상 자산 승계 상품 제공에도 유리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MUFG 그룹은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탁 및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글로벌 리츠, 인프라 자산 등에 대한 신탁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보유한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자산 규모에서도 일본 내 1~2위를 다투며, 특히 법인 대상 부동산 유동화, 복합 개발형 신탁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개인 및 법인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다.

MUFG그룹 네트워크 통해 원스톱 솔루션 제공



자료: MUFG, 삼성증권

MUF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거점

자료: MUFG,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동사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을 위한 상속, 자산승계 서비스에 관해서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상속 대비 및 실행을 지원하는 웹 기반 포탈 사이트 상속 이로하(相続のいろは, 상속의 기초지식)을 운영하고 있어, 상속 준비 및 상속 절차에 대해 고민 중인 고객에게 도움을 준다. 상속 이로하는 2020년에 설립된 MUFG 상속연구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속, 자산승계 실무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며 실제 상속 절차와 전략 설계를 돕고 있어 실행 중심으로 고객의 평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웹 기반 포탈 사이트 '상속 이로하'(상속 기초지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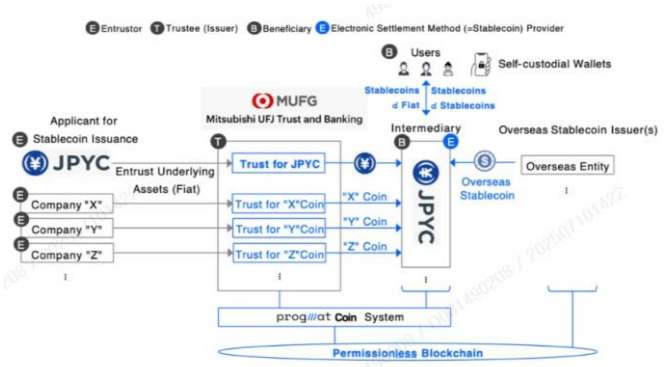
자료: MUFG, 삼성증권

MUFG 상속연구소에서 리포트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자료: MUF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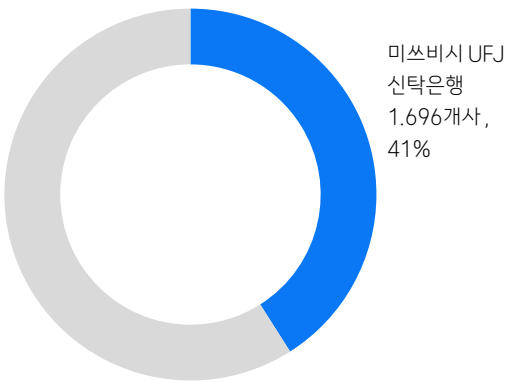
한편,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신규 분야는 디지털 자산 수탁과 해외 수탁업무 서비스다.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토큰증권(ST)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했으며, Progmat이라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화 대응이 늦은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이나 미즈호 신탁은행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글로벌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 및 관리 서비스에서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사보다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 'Progmat'



자료: Progmat, 삼성증권
참고: 미쓰비시UFJ은행은 Progmat에 49% 출자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의 수탁 상장기업 수



자료: MUF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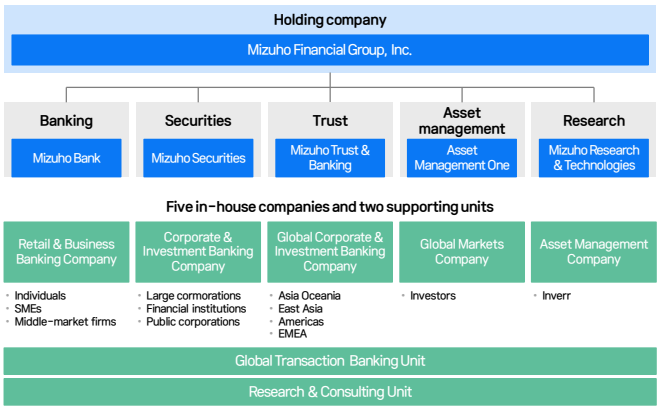
③ 미즈호 신탁은행

법인 고객 솔루션 및 자산 정리 가격 경쟁력에 강점

미즈호 신탁은행은 미즈호파이낸셜그룹(Mizuho Financial Group, MFG) 산하의 종합 신탁은행으로, 기업금융, 부동산 신탁, 자산운용, 수탁업무, 상속·승계 신탁, 기업지배구조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미즈호은행, 미즈호증권과 협업하여 법인 고객 중심의 금융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탁 부문에서는 부동산 관련 구조화 금융과 퇴직연금 수탁에 강점을 보이며, 특히 법인 금융과 자본시장 영역을 중심으로 신탁기능을 결합하는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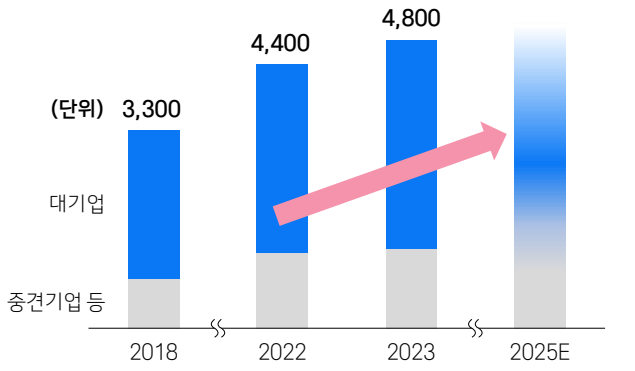
특히, 미즈호 신탁은행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특화 전략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즈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자산 유동화, 자금 조달 구조 설계 등에서 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M&A 후의 자산관리, 자회사 구조 개편 시 수탁기능 결합 등 기업의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신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네트워크



자료: 미즈호 신탁은행, 삼성증권

일본 국내 법인고객 매출액 추이



자료: 미즈호 신탁은행, 삼성증권

동사의 또 다른 강점은 퇴직연금 수탁 및 자산관리 부문이다. 특히 Defined Benefit(DB)형 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 컨설팅, ALM 분석, 금리·인플레이션 시나리오 제공 등에서 경쟁사보다 정교한 금융 기법을 활용해 대기업 및 연기금 운용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미즈호 신탁은행은 기초 설계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형 접근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오피스 빌딩, 복합 상업시설, 물류 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구조화 신탁도 강점으로 볼 수 있는데, 미즈호증권과 연계된 리츠(REITs), 부동산 유동화 상품 설계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유휴 자산화, 임대수익 창출, 자산유동화 전략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사 대비 법인 중심의 자산운용 경험이 많고, 이에 따른 법무·세무 설계 역량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를 위한 주주행동 가이드라인 제공, 의결권 자문, ESG 성과 추적 및 리포팅 등에서 실무적으로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즈호증권의 리서치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뿐 아니라, 투자자와 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중개 역할도 신탁 기능을 통해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즈호 신탁은행은 개인의 자산 정리, 상속 서비스 제공 시 대행 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다. 비용에 민감한 고객층(중소 자산가, 일반 개인 등)에게 낮은 대행 수수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해 가격,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수요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은행별 상속 수속(유산 정리) 수수료 비교

재산액	미쓰비시UFJ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리소나 신탁은행
5,000만 엔이하	1.8	1.54	2.2	2.2
5,000만 엔 이상 1억 엔 이하	1.8	1.54	1.65	1.65
1억 엔 이상 2억 엔 이하	0.9	0.88	1.1	1.1
2억 엔 이상 3억 엔 이하	0.9	0.88	0.88	1.1
3억 엔 이상 5억 엔 이하	0.5	0.55	0.66	0.55
5억 엔 이상 10억 엔 이하	0.5	0.44	0.44	0.55
10억 엔 이상	0.3	0.33	0.33	0.55

참고: 보수율(소비세 포함)%
자료: 콘사이토 사법서사사무소, 삼성증권

일본 신탁업에서 배우는 시사점

일본 신탁은행은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 진화 중

일본 3대 은행의 공통된 과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화와 신탁기능의 사회적 활용 확대이다.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장기관리, 상속 및 후견 기능이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 각 신탁은행은 고령자 보호 신탁, 치매 신탁, 유언 신탁 등 신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서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신탁 및 도시개발을 통한 수익 기반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합 상업지구 개발, 공공 민간 연계 도시재생 프로젝트, 고령자용 레지던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공존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각 신탁은행은 신탁 재산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헬스케어 시설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리스크 분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탁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3대 신탁은행은 고령화, 디지털 금융이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각각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고령자 대상 신탁상품과 자산승계에서,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은 그룹 시너지와 해외 네트워크 차원에서, 미즈호 신탁은행은 법인고객 대상 맞춤형 신탁 솔루션에서 경쟁력을 발휘한다. 향후 일본 신탁시장의 중심축은 이들 3사가 고도화하는 전문성, 사회적 수요 대응력, 디지털 경쟁력의 조합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재편될 것이다.

규제 개선 및 세제 인센티브 필요

일본은 2006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민사 신탁 제도를 허용하며 신탁계약의 자유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녀와 사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가족 외 제3자가 수탁자가 되어 재산 관리를 대행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금융회사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개인 간 신탁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는 한국 신탁시장의 상품 다양성 부족과 구조적 제약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포인트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리스크에 특화된 신탁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복지형 신탁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탁은행들은 '생애설계 신탁'을 통해 고령자의 은퇴자산을 목적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대상 무료 유언상담, 치매 리스크 발생 시 자동 대리수탁 기능이 포함된 신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일부 은행 등이 유언대용 신탁, 치매대응 신탁 등을 출시하였지만, 법적 보호장치나 공공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실질적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법,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신탁법 개정이 일본 신탁산업 성장 기반이 되었다면,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이다. 교육자금증여 신탁, 결혼육아지원 신탁과 같은 비과세 신탁 상품을 마련하면서 개인 신탁의 성장을 위해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구조화된 투자 수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신탁을 단순한 재산 관리 수단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지역문화보전 신탁을 통해 지역 전통예술 및 문화재 관련 자산을 신탁 형태로 보존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또한,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신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재산을 신탁해 생애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후견 신탁도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ESG형 신탁이나 지역사회 연계형 신탁이 아직 시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춘 설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신탁을 ESG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일본형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신탁업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민간계약형 신탁의 제도적 도입이 선결되어야 하며, 다양한 생애주기별 니즈에 맞춘 유연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자산 이전, 상속설계, 노후 생활비 분배, 복지수급 연계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이 필요하다. 일본은 신탁을 통해 공공 부문 부담을 덜고, 가족 간 신뢰 기반의 자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사례가 풍부하다. 이와 같이 한국도 고령사회 대응형 신탁, 개인자산 보호형 신탁, 지역사회 연계형 신탁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테마형 금융상품 및 장기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신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례에서 배우는 신탁업 관련 시사점

시사점	내용
민사 신탁 법제 정비	자기 신탁 허용, 치매 대비 신탁 관련 판례 축적 필요
고령자 맞춤 상품 확대	연금형 신탁, 요양비 지정 신탁 등 상품 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 부여	유언대용 신탁, 치매대비 신탁에 소득세·상속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공공-민간 연계 모델	지자체와 협업해 노인 복지+자산관리 통합 서비스 신탁 개발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9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9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